

# Traveling in Korea (Natural Conversation) - Korean Language Immersion #1

[00:00:00]

**Agnes:** 한국을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.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4월에 그리고 완전 한국이 벚꽃철이잖아.

---

[00:00:08]

**Jane:** 벚꽃. 어 맞아.

---

[00:00:16]

**Agnes:** 안녕하세요. 여러분. 지금부터 시작할게.

---

[00:00:20]

**Jane:** 네.

---

[00:00:21]

**Agnes:** 자 일단 첫번째 질문.

---

[00:00:22]

**Jane:** 네.

---

[00:00:22]

**Agnes:**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여행지가 어디라고 생각해?

---

[00:00:25]

**Jane:** 난 서울. 서울이 이제 한국에 핵이자 이제 다른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니까.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. 서울도...

---

[00:00:34]

**Agnes:**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?

---

[00:00:36]

**Jane:** 응. 외국인들도 애초에 서울 자주 놀러가고. 촌살면 서울 여행 자주 가고. 나도 서울 여행 자주 가는데.

---

[00:00:43]

**Agnes:** 그건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?

---

[00:00:46]

**Jane:** 가족여행도 서울로 가.

---

[00:00:47]

**Agnes:** 그건 맞지. 그래? 왜 나는 제주도인데. 외국인... 근데 외국인 기준이면 모르겠는데 한국인한테는 무조건 제주도 아니야?

---

[00:00:56]

**Jane:** 제주도 좋은데 이제 인프라, 이제 약간 힐링을 원하면 호캉스라든지 하면 약간 서울로도 갈 수 있지. 서울이 인프라 많고 맛있는 것도 많기도 하니까.

---

[00:01:06]

**Agnes:** 그럼 서울?

---

[00:01:06]

**Jane:** 응, 난 서울. 왜 제주도?

---

[00:01:09]

**Agnes:** 제주도는 왜냐하면 일단은 바다가 있잖아. 서울은 바다가 없고. 보통 약간 여행이라고 하면 엄청 바다가 좀 되게 기본이잖아. 제주도 가 또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. 그래서 딱 여행가는 느낌이 있잖아 제주도.

---

[00:01:25]

**Jane:** 응 그치.

---

[00:01:26]

**Agnes:** 다른 데는 솔직히 다 육지로 갈 수가 있으니까.

---

[00:01:30]

**Jane:** 다 버스 타고 가니까.

---

[00:01:31]

**Agnes:** 응. 그래서 나는 제주도

---

[00:01:33]

**Agnes:** 다음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도시와 그 이유

---

[00:01:37]

**Jane:** 음 나는 파주. 파주는 이제 바로 우리의 고향이지. 거의 20년 넘게 파주에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결국 파주에 있을 수밖에 없지.

---

[00:01:46]

**Agnes:** 음~~~

---

[00:01:50]

**Jane:** 정이 들었다고 해야지.

---

[00:01:51]

**Agnes:** 그래?

---

[00:01:52]

**Jane:** 응.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. 넌 뭘 제일 좋아하니?

---

[00:01:57]

**Agnes:** 나는 부산.

---

[00:01:59]

**Jane:** 부산? 하긴 자주 여행 가기도 했지 년.

---

[00:02:02]

**Agnes:** 응, 난 부산.

---

[00:02:03]

**Jane:** 뭐가 좋아 부산?

---

[00:02:04]

**Agnes:** 부산은 원래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? 근데 스페인 갔다와서 좀 좋아하게 됐지

---

[00:02:11]

**Jane:** 무슨 상관인데?

---

[00:02:12]

**Agnes:** 바르셀로나를 갔다 와서 바르셀로나가 너무 좋은데 한국에는 그런 비슷한 도시가 부산이었거든. 그니까 막 바다가 일단 있어야 되고. 바르셀로나는 엄청 대도시잖아. 그래서 바다가 있어야 되는데 대도시여야 돼. 그러면 부산 밖에 없잖아.

---

[00:02:30]

**Jane:** 그치. 인천은 좀 애매하고. 부산이 좋지.

---

[00:02:33]

**Agnes:** 그니까. 그래서 나는 부산.

---

[00:02:35]

**Agnes:** 그리고 다음은 한국 여행의 특이점.

---

[00:02:39]

**Jane:** 한국 여행 특이점?

---

[00:02:40]

**Agnes:** 어. 뭔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좀 왔을 때 이거는 미리 좀 알면 좋겠다 라던가 뭐 그런 특이점이 있어? 한국에서는 노약자석은 노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거.

---

[00:02:55]

**Jane:** 아 그 노란색으로 돼있는 거? 하긴 그건 모르지.

---

[00:02:57]

**Agnes:** 그거 전철에 노약자석이 옆에 이렇게 사이트에 따로 있잖아. 근데 원래 이제 거기가 노약자석이긴 한데 비어있을 때도 많잖아. 근데 비어있어도 앉으면 좀 안 되는? 그런 분위기가 좀 너무 형성이 되어 있어서

---

[00:03:13]

**Jane:** 맞아. 버스도 약간 그런...

---

[00:03:14]

**Agnes:** 그니까 아예 비워두는 자리 느낌이잖아. 노약자가 아니면.

---

[00:03:17]

**Jane:** 응 맞아.

---

[00:03:19]

**Agnes:** 그 다음은 바다랑 산, 자연 중에서 한국에서는 뭘 즐기기가 제일 좋은지?

---

[00:03:26]

**Jane:** 바다랑 산이랑

---

[00:03:27]

**Agnes:** 자연.

---

[00:03:28]

**Jane:** 자연? 내가 볼 때는 3면이 바다니까 바다도 좋은데 국토의 한 60이 산이지 않나?

---

[00:03:38]

**Agnes:** 그럴걸?

---

[00:03:39]

**Jane:** 하긴 난 등산을 자주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산이 엄청 많거든. 애초에 그 웬만하면 단지마다 뒷산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산이란 게 발달했던 말이야 이제. 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산을 약간 찾으려면 찾는데 그렇게 가까이는 못 본 것 같아 외국 갔을 때. 나는 산.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거 어디 지방갈 때 보면은 진짜 산 깎았다 이런 거 엄청 많잖아.

---

[00:04:00]

**Agnes:** 응. 맞지 맞지.

---

[00:04:01]

**Jane:** 진짜 그 정도로 산이 많아. 애초에 저 우리 집 밖에도 우리 뒷산 보이니까.

---

[00:04:05]

**Agnes:** 그렇게 깎았는데도 산이 많잖아. 난 솔직히 근데 한국에서 자연은 잘 모르겠어서. 나는 바단데. 음 일단 바다가 한국은 좀 그런 게 있어. 어느 지역에 가는데 따라서 바다가 되게 특징이 두드러지는 그런게 있잖아. 그래서 조금 약간 진짜 바다, 물 바다 이런 느낌을 좀 느끼고 싶으면 강원도 쪽으로 가면 되고.

---

[00:04:31]

**Jane:** 맞아 거기 바다가 예쁘잖아.

---

[00:04:32]

**Agnes:** 그니까. 강원도는 그리고 되게... 우리도 갔었잖아 강원도를. 근데 진짜 막 여행, 커플들도 진짜 많이 가고 특히 강릉이런데 진짜 많이 가고. 근데 만약에 또 너무 깊은데 말고 약간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? 그러면은 좀 남해나 서해 쪽으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바다를 고르겠어.

---

[00:04:53]

**Agnes:**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여행?

---

[00:04:56]

**Jane:** 나는 강릉도 좋았는데 역시 최근에 간 태안이 좋았던 것 같아. 태안이 약간 생소하잖아 우리한테. 나도 태안은 약간 잘 몰랐거든.

---

[00:05:07]

**Agnes:** 나도 몰라

---

[00:05:08]

**Jane:** 근데 이제 우리가 동해만 가다 보니까 한번 서해로 가자 했는데 서해가 갈 데가 좀 애매하더라고. 인천은 너무 노는 느낌이고. 한적한 느낌으로 태안을 가봤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. 이제 해수욕 입욕하고. 물론 안경을, 고글을 못 써가지고 바닷물을 먹을 때 힘들긴 했지만 너무 물 속에서 바닷물에서 이렇게 안에서 그냥 노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? 동해는 못 그러니까.

---

[00:05:34]

**Agnes:** 그치.

---

[00:05:34]

**Jane:** 갯벌도 있고. 갯벌도 약간 모래 같은 거 이제 머드 같은 거 이제 몸에 바르고 장난치기 좋고 그거 막 던지면서 놀았거든.

---

[00:05:42]

**Agnes:** 킹받네.

---

[00:05:44]

**Jane:** 애들끼리 그걸로 눈싸움을 하고 그런 걸로 놀아서 재밌었던 거 같아. 바다가 즐기기 좋았어.

---

[00:05:50]

**Agnes:** 근데 나는 최근? 제일 최근에 갔다 온 게 나는 부산이어가지고.

---

[00:05:55]

**Jane:** 음~ 그때?

---

[00:05:56]

**Agnes:** 부산도 진짜 먹을 게 엄청 많잖아. 시장 음식도 되게 유명하고 낙곱새부터 시작해서

---

[00:06:04]

**Jane:** 부산이 또 특산, 약간 명물 음식이 많잖아. 돼지국밥, 물방울떡, 납작만두, 밀면 이런 거.

---

[00:06:10]

**Agnes:** 그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가 딱 바다도 있고 그리고 먹는 것도 진짜 너무 많고 다 맛있어가지고 그래서...

---

[00:06:21]

**Jane:** 그치. 바다가 딱 발만 담그기도 좋고 들어가도 좋고.

---

[00:06:25]

**Agnes:** 그니까. 그래서 나는 부산을 고르겠어

---

[00:06:26]

**Agnes:** 한국을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?

---

[00:06:32]

**Jane:** 일단 여름이랑 겨울은 빼고 가을인 것 같아. 가을에 단풍지기도 하고 이제 단풍지는 게 예쁘고, 봄... 봄도 좋지만 나는 그래도 여름 지나

고, 이제 여름 때 짜증났으니까. 이제 그거 다 없어지면서 가을이 좀 좋은 거 같아 선선하고. 봄도 좋은데 그것보다 약간 가을이 더 고독한 느낌이잖아. 낭만이 있다고 해야 되나?

---

[00:06:55]

**Agnes:** 웃긴데? 나는 약간 4~5월?

---

[00:07:00]

**Jane:** 음~ 이제 봄에서 여름 갈 때?

---

[00:07:03]

**Agnes:** 응. 좀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4월에 그리고 완전 한국이 벚꽃철이잖아. 벚꽃 장난 아니고. 그리고 딱 그때부터 다 막 꽃이 좀 피기 시작해. 풀이 막 울창해지고. 많아지고 좀 보기가 좋아지는 거지.

---

[00:07:18]

**Jane:** 그리고 그때가 날씨 딱 좋지.

---

[00:07:19]

**Agnes:** 맞아 맞아. 딱 5월까지가 날씨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그 6월부터는 좀 너무 더워져가지고.

---

[00:07:25]

**Jane:** 맞아. 너무 더워가지고.

---

[00:07:25]

**Agnes:** 그리고 모기도 많잖아. 그래서 그냥 5월까지가 진짜 막 맨날 놀러다니기 딱 좋은, 그런 밖에서 놀기도 좋고 딱 그런 날씨.

---

[00:07:34]

**Jane:** 겨울은 추워서 옷을 못 입어. 그니까 스타일링을 못하잖아 여름이랑 겨울은.

---

[00:07:40]

**Agnes:**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너무 겨울은 뭐 볼 게 없다고 해야 되나? 조금 양상하고 나무도 다. 그래서 겨울은 볼 게 없으니까 나는 딱 그때쯤 4-5월?

---

[00:07:52]

**Agnes:** 그리고 한국을 여행했던 외국인 친구가 있는지 그리고 어땠는지? 근데 되게 다들 되게 여기에 온 목적이 달라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일단 한국에 오는 사람들 자체가 한국을 좀 알고 오는 거야. 한국을 아예 모르는데 오고 이런 게 거의 없고.

---

[00:08:12]

**Jane:** 그치. 한국이 약간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긴 하니까.

---

[00:08:14]

**Agnes:** 어 그치. 그런 게 아니니까 뭔가 한국의 음식이 좋아서 왔다거나 아니면 한국에 뭔가 문화, 뭐 KPOP 이런 걸 좋아해서 왔다거나 약간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게 이미 있어가지고 다들 좋아하긴 했어. 웬만큼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다 좋아했고. 그니까 되게 한국에 뭔가 본인이 어쨌든 어떠한 기대나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이제 막상 오면은 본인이 뭔가 생각한 그런 매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.

---

[00:08:48]

**Jane:** 그렇지.

---

[00:08:50]

**Agnes:**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~